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가다 <7>세종로컬푸드 아릅점

#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고스란히”

2015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는 세종시와 농·축협, 기업,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출자해 만든 회사로, 로컬푸드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 이에 세종로컬푸드는 1호점인 도담점에 이어 2호점인 아릅점을 개장하고 로컬푸드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세종로컬푸드 아릅점을 찾아 이들의 애걸 들어봤다.

### ◆지자체 로컬푸드 롤모델

세종로컬푸드 아릅점은 2018년 문을 열었다. 1호점인 도담점이 세종시에 로컬푸드를 정착시키는데 성공을 거둬에 따라 인근 아릅동에 2호점을 낸 것이다. 이곳 매장 규모(880㎡)는 1호점과



세종로컬푸드 아릅점이 세종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릅점에서 만난 생산자 박정규 씨와 정효희 세종로컬푸드 기획홍보팀장, 소비자 장영랑 씨(사진 왼쪽부터).

도담점 이어 아릅점도 개점 두 곳 모두 매출 성장 고무적 출하농가 분리, 품목 다양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줄이어

소비자와 신뢰 돈독 포장용기 다시 보내주기도 '기부 상생냉장고' 운영 직매장 통해 상생가치 실현

비슷하나 위치상 아파트 단지가 좀 더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호점과 2호점 거리는 약 3km에 불과하며, 차량으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 이에 개장 초기, 2호점 개장으로 1호점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는 두 매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효희 세종로컬푸드 기획홍보팀장은 “처음엔 로컬푸드 소비가 양 쪽으로 나뉘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양 쪽 모두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직매장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 소비자들도 생산자인 농민과 상생해 나가는 마인드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로컬푸드 직매장 회원 수는 4만6000명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재구매율이 높아 많은 충성고객을 확보

하고 있는 것도 안정적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다.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설립한 세종시로컬푸드는 설립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의 로컬푸드 확산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매일 같이 1호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협동조합이나 농협이 주도해 만든 로컬푸드 직매장과 달리 지자체가 주도해 만든 직매장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정효희 팀장은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3호점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생산자인 농가 관리도 각 매장이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세종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는 950여 농가인데, 1호점과 2호점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 출하농가가 각각 나뉘져 있다. 양 쪽으로 출하가 가능하면 출하물량이 규모화 되고 품목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출하농가를 분리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품목이 매장 내 진열되도록 한다”며 “아릅점 판매대가 비었을 경우 도담점에서 물건을 가져와 보충하지 않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차츰 농가들이 무엇을 더 생산해야 하는지를 알아, 계획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세종로컬푸드 아릅점은 2019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15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간

세종시 소비자들도 세종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로컬푸드의 가치를 알아가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이곳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장영랑 씨는 “세종으로 이사를 오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그 전까진 로컬푸드에 대해 몰랐는데 직매장을 이용하고부터는 푸드마일리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무엇보다 지역 농가와 상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을 지나 다 잘 익은 과일을 보면 하나 따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곳 매장에 오면 그런 농산물이 가득 진열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농가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효희 팀장은 “같은 품목이라도 어떻게 담고, 포장하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연구를 한다”며 “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안전성 문제부터 가격 관리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 연동면에서 무농약 딸기를 생산하는 박정규 씨도 이곳 직매장에 출하하면서부터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심을 갖고 7년 전부터 딸기 농사에 뛰어들었다”는 그는 “안전성은 기본이고, 어떻

게 하면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딸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별도 주문·제작한 용기에 담아 딸기를 출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딸기를 담은 포장용기가 특별하다 보니 이런 포장용기만 보고 사가는 고객들이 있으며, 어떤 고객은 포장용기를 모아 직접 택배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농장에 다시 보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규 씨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을 땐 공판장으로 출하했는데 아무리 무농약 농사를 지어도 관행 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없었다”며 “이제는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매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를 농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고객까지 생겨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로컬푸드 아릅점 내에는 ‘로컬푸드 기부 상생냉장고’가 운영 중이다. 매장에서 다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은 농가가 수거해 가져나 이곳에 기부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부 활동이 이어지자 소비자들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는 생산자 전용 기부 냉장고와, 소비자 전용 기부 냉장고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정효희 팀장은 “직매장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로컬푸드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 매장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끝>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기회〉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제주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범위에 스마트팜지원사업 등이 추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비상품 감귤의 정의를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에서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개정한다. 감귤 상품기준은 온주밀감의 경우 과실의 크기가 횡경 49mm 이상 71mm 미만 또는 감귤 무게가 53g 이상 136g 미만이다. 만감류의 경우 무게 기준 한라봉은 200g 이상, 천혜향·레드향·황금향 각각 150g 이상이며, 당도 기준 한라봉은 12브릭스 이상, 천혜향·레드향 11브릭스 이상, 황금향 10브릭스 이상이다. 또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거나, 감귤을 후숙·간제 착색시켜 유통한 자 등 위반 행위에 대한선 현행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에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 △부패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감귤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까지로, 도 감귤진흥과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 ‘커피과자 설기’ 등 쌀가공품 TOP10 선정

### 온라인플랫폼 입점 등 지원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품 TOP10’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쌀가공식품 품평회’는 쌀로 만든 떡, 면, 과자, 전분·당류, 조미식품, 음료 주류 등 다양한 쌀가공품을 한자리에 모아 한해의 대표 ‘쌀가공품 TOP10’을 선발하는 대회다.

쌀가공식품 품평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쌀가공품 TOP10’은 맛·품질·상품성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품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쌀가공품 TOP10에는 △㈜영의정 ‘커피과자 설기’ △강동퓨어푸드 ‘오늘의매뉴 떡국’ △미듬영농조합법인 ‘카카오넵스 라이스칩’ △농협회사법인 명성제분㈜ ‘한끼급바 퍼플’ △㈜네이처오다 ‘달집 초코샌드’ △씨제이제일제당 ‘비비고 소고기죽’ △청오건강농업회사법인㈜ ‘유기농발아미숫가루’ △농협회사법인 ㈜한우물통새우볶음밥’ △㈜우리술 ‘가평자생

막걸리’ △농협회사법인 조은술세종㈜ ‘우도땅공전통주’가 최종 선정됐다.

‘쌀가공품 TOP10’은 쌀 함량이 최소 30% 이상, 시판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예비평가, 전문가 관능평가, 소비자 선호도 등 종합적으로 심사·선정되며, 선정된 제품은 홍보·마케팅 등 사후 활동 평가를 통해 TOP10 시상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 선정된 ‘쌀가공품 TOP10’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 국내 유명 셰프들과 진행하는 쿠킹파티 ‘라이스워크’ 등 더욱 확대된 선정 특전을 누릴 수 있다.

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쌀가공품 품평회는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 유도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소비자 인지도 확산 및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과 같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올해의 대표 쌀가공품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 로컬푸드 현장교육기관 24일까지 운영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주체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현장교육기관’ 운영자를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총 3개소 내외의 기관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재비, 홍보비 등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아 현장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직거래사업장 운영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치·운영, 기획생산, 가공품 개발 등 로컬푸드 관련 실무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상품포장, 출하·진열 등 현장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aT는 우수 사업장의 운영노하우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aT 푸드플랜부(061-931-1093)로 연락하면 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국내 1위 그린바이오 기업 팜한농이 LG CNS·연암대학교와 함께 「매치업 (Match業)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 매치업 스마트팜 교육 안내

- 한국농협과 함께 성장해온 국내 1위의 그린바이오 기업 팜한농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인 스마트팜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LG CNS·연암대학교와 함께 「매치업 스마트팜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 하였습니다.
- 교육 수강 및 인증 평가 합격자에게는 팜한농·LG CNS가 직무능력 인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교육 안내**  
매치업 홈페이지 (www.matchup.kr)

### 교육 과정

- 스마트팜 시설 구축 전문가(스마트팜 구축, ICT 활용 등)
- 스마트팜 방제 전문가(살균제, 살충제 등)
- 스마트팜 영양 전문가(영양관리, 작물생리 등)
- 스마트팜 환경 관리 전문가(수분/양분이동, 재배 관리 등)

### 교육 수강

연암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edu.yonam.ac.kr)에서 온라인 수강 ※ 9월 개강 예정

### 참여 대상

- 농업인 또는 귀농 예정인
- 농업회사 종사자 및 농업회사 취업 희망 학생
- 스마트팜(유리 온실/폴라스틱 온실)을 활용한 작물(수박, 딸기, 참외, 토마토, 오이) 재배에 관심 있는 분

### 신청 문의

매치업 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974  
스마트팜 분야: 연암대 평생교육원 041-580-5522

교육과 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팜한농** **LG CNS** **연암대학교**